



건강한 선택

서울문성국민학교
교사 최완웅

인간의 구조란 참으로 미묘한 존재인 것 같다. 마음도 그렇듯 생식기의 구조도 너무나 미묘하다.

흔히 인간이 우매하고 몽매하다는 말을 주위에 서 흔히 듣는다. 그것은 바로 건강을 잃었을 때에 절실히 느낄 수 있다. 나 역시 건강을 잃고서야 얻은 사실이지만.

우리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너무나 모르고 지낸다. 바로 인간이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천혜의 자원 즉, 물과 햇빛과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피로워 해보지 않고서 피로운 이의 심정을 알리 없듯 아프지 않고서는 아픈이 심정을 알리 만무하다.

요즘 찌들대로 찌들어버린 현대를 보면 태초 '인간이 겪었던 대자연과의 반항이나 싸움을 연상케 한다. 무서운 독성을 가진 약이 우리에게,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버리는 것 같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질병에 미쳐 손쓸 새도 없이 쓰러져버린다 물론 현대의학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그 옛날 앓다 쓰러진 병쯤이야 먼 얘기가 되었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불치의 병이 많다.

젊은 나이에 당노라든가 허리디스크라든가 또는 습진, 무좀, 건성피부 등을 앓는 불치병 환자를 많이 보아왔다. 바로 그들은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 재산인지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예행연습이 될 수 없듯 그

것을 연습으로 느낄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할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비록 우리가 만들어 버린 병이라 해도 뒤늦게나마 이겨내야 한다. 물론 병이 몸 속으로 파고 들어올 여유와 관심을 주지 않았더라면 더욱 현명한 방법이 있었겠지만 인내가 필요하던 치료기간을 꾸준히 참지 못하고 되려 병균에게 번식력을 더 강하게 심어 준다든지 또는 치료법을 위반한 자만심을 더욱 더 큰 화를 낳을지 모른다.

인간이 우매하고 몽매하다는 것은 이러할 때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다면 그게 얼마나 찬란한 자기자신의 승리가 되겠는가?

삶은 그 누구가 뭐래도 참으로 멋있는 것이요, 충분히 투자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시작과 죽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뿐, 우리가 건강한 한 세상을 살려는 선택은 주어졌다고 본다. 건강을 잃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 건강을 소중하게 알자.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면 값싸고 장수식품인 우유만이 해결해 주리라 확신한다.

오늘도 내 주위에 건강 찾아 해매는 이에게 힘과 용기와 날려는 의지를 선사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루의 삶을 감사히 생각할 줄 알라 하고 싶고 우유로 건강을 지켜 이상의 '날개'를 들려주고 싶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한번 더 날자꾸나."